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칭다오이공대학교 칭다오학원	기숙사비	6000/한 학기
파견지역	칭다오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9.03.05.~2019.07.05	기타비용	휴대폰 유심 개통 200위안 기숙사 보증금 500위안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4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 07 .26

파견자 :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정규수업 시작 전날에 분반 고사를 보게 되는데, 반은 초급A1, 초급A2 초급B, 중급A, 중급B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반 수업이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데 1교시(8시~8시 50분)부터 2교시 (9시~9시 50분)까지 수업을 듣고 3교시(10시 10분~11시)부터 4교시(11시 10분~12시)까지는 듣기(팅리)와 말하기(코위) 수업이 교차로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1,2교시에 보야 수업 대신 작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방식은 저는 중급 A반에서 들었기 때문에 초급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급반은 일반적인 학원처럼 선생님께서 수업을 혼자서 진행하시고 미리 준비해 오신 PPT자료로 교재에 맞춰 수업 설명을 하십니다. 교재는 총 15단원이 있는데 4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시험을 보고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 평가는 보야 수업만 봅니다. 중간고사는 따로 없고 중강 직전에 기말 고사 한 번만 봅니다. 보야 과제는 크게 없고 중급 A반 코위수업 과제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소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Ting 수업도 과제가 없습니다.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업 과제는 처음 학교에 등록할 때 교재비를 같이 납부하는데 분반고사 이후 첫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교재를 배부해주십니다. 수업 초반에 일주일 정도 반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때 상황을 대비하여 교재를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공책이나 다른 곳에 필기를 하신 다음 반이 확정되면 그 반의 교재에 필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재에 필기가 되어있으면 반 이동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 위치는 칭다오시 청양구에 위치해있고 청양구에서 제일 큰 시내인 따베이취가 버스를 타고 3~40분 정도 가야 있습니다. 5.4광장이 위치해있는 칭다오에서 가장 큰 시내인 스난구는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촌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내에 나가면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mix mall 같은 복합 쇼핑몰이나 까르푸 같은 편의시설이 많아서 나갈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 위치가 시내랑은 좀 멀지만 공항과는 가까워서 입. 출국 시에는 편리합니다. 류팅국제공항과는 택시를 타고 20분~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칭다오 날씨는 한국과 비슷한데 해양 도시라서 바람이 굉장히 세고 1학기에는 더운 날보다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4월 말까지는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1학기에 파견되는 분이라면 여름 옷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겨울 옷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칭다오에는 한국 분들이 많아서 한국 음식이 많습니다. 웬만한 한국음식은 거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음식이 잘 맞지 않는 분들도 음식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한국 컵라면이나 식품들을 많이 팔아서 굳이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국 제품만 따로 파는 한인마트가 많아서 생각보다 음식이 맞지 않아 힘든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칭다오가 산둥 지역이라 향신료가 세지 않고, 거북한 향을 많이 쓰지 않아서 먹는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북쪽이다보니 음식 간이 대체적으로 짭 경향은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6000위안/보증금 5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드라이기, 전기장판, 포트기 등 전자제품 사용 금지 10시 이후 기숙사 문 잠금. (유학생은 쪽문 이용 가능)		
주요사항	정해진 날짜에 선생님들이 방 검사를 돌때가 있음. 11시 이후에는 관리실 아주머니가 주무시기 때문에 용무가 있으면 11시 전에 관리 사무실 방문할 것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2인 1실을 사용했고

제가 사용했던 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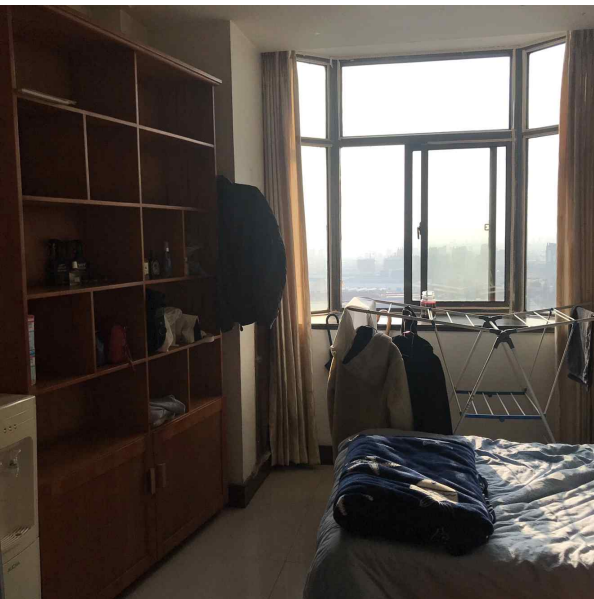
조금 넓어서 기본적인 침대 2개, 책상2개, 장롱 1

개, 책꽂이 선반 1개, 신발장 1개, 정수기를

배치하고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진은 오른쪽에 룸메이트와 마주보는

구조로 배치했을 때 사진입니다.



방이 넓어서 침대와 장롱을

마주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불 세트, 스탠드, 빨래건조대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출기 때문에 여분의 담요나 이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방에서 내려다 본 학교 중심 풍경입니다.
오른쪽은 광장이고, 왼쪽의 둥그랗게 생긴
건물이 도서관 건물입니다.
도서관 건물에 마트, 세탁소, 은행 ATM기기 등
편리한 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크기는 넓은 편입니다.
언덕이나 산지가 아니라 평지여서
산책으로 캠퍼스 내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운동장에서 본 기숙사 건물과 구 체육관
건물입니다.
운동장 크기는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에서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구 코트, 축구 골대, 배드민턴 코트,
실내 배드민턴 장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 런닝 등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다.



중급 A반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입니다.
모든 반이 동일하게 선생님께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강의실 크기는 반마다 다르지만
협소하여 불편한 적은 없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원래는 신발장으로 활용 가능한
 탁자형식의 장이 하나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신발을 바닥에 놓았다가
 구조를 바꾸면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문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사진이 없지만
 온수기가 있는데 전기가 약한 방들은
 온수기 코드를 꼭 뽑고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를 사용해야 전기가 안 끊깁니다.



장롱은 왼쪽에 있는 것인데
 위, 아래로 같은 구조로 붙어있어서
 위에는 룸메이트가, 아래는 제가 사용했습니다.
 겨울옷과 여름옷을 다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책꽂이에 여름옷을
 접어서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홀수방 풍경입니다.
 기숙사가 짝수, 홀수방으로 호텔 형식처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짝수방, 홀수방 풍경이 다릅니다.
 학교 전경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짝수방
 사진처럼 산과 유럽풍 건물이 좋으면
 홀수방 호수를 쓰면 됩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환학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굳이 가야하는 건지 가기 직전까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학교를 통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는 교환학생 밖에 없었고, 저는 4학년 1학기 파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비록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학점이 연계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제 스펙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즐기고 오자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영어권 교환학생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중국인 교환학생을 지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미세먼지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 환경이나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또 그만큼 감수해야겠다는 다짐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도 있었고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경험했던 중국이 무조건 불편하고 더럽기만 하고 무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파견 초반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공간이 간혹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등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가게 된다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곳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배경을 잘 숙지하고 감수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만 가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활하기 힘들고, 파견이 후회되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파견이기 때문에 솔직히 언어가 유창하게 늘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교환학생을 통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생활 초반에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하루하루를 더 보람되게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었습니다. 이미 1년 째 생활하는 한국인 친구들과 저, 스스로를 비교했을 때 수준차가 많이 났고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구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도, 중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그러다가 학기 중간이 되기 전에 더는 이렇게 힘들게 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즐기고 오자고 마음먹었던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정말 훨씬 더 잘 들리고 중국인 친구를 만날 때도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훨씬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교환학생에 대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인터넷 환경도 불편하고 생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수기를 작성하는 지금도 그 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림고 평생 소중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운 선생님들, 같이 수업 들었던 반 친구들, 같이 생활하면서 친해진 한국 유학생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모두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